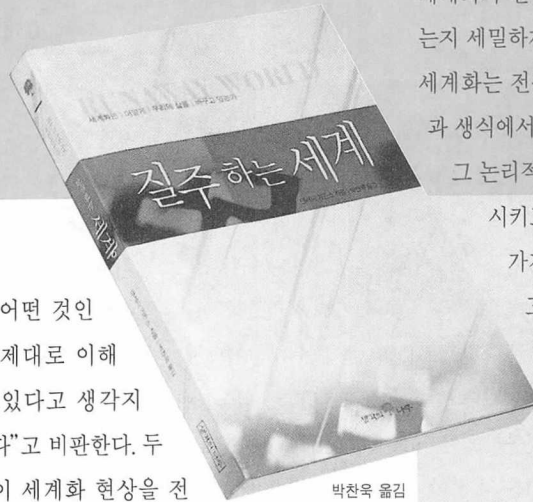


## “위험을 각오하고 세계화의 물결을 타라”

앤서니 기든스의 《질주하는 세계》



박찬욱 옮김  
생각의나무/A5변형/266면/8000원

4반세기 전 인류학자 에드먼드 리치는 BBC의 리스강연을 맡으면서 그 제목을 ‘질주하는 세계’라고 정했다. 앤서니 기든스는 이 제목을 다시 살려 세기말을 장식하는 BBC의 리스강연 제목으로 삼았다. 이 어구가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인류의 느낌을 적절하게 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학자의 강연제목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원조’ 격인 리치의 강연제목에는 물음표가 붙어 있었으나, 기든스의 그것에는 물음표가 없었던 것이다. 기든스는 왜 리치의 강연제목에서 물음표를 뺐을까. 다음의 일화가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중앙 아프리카지역의 촌락생활을 연구하는 한 학자가 있었다. 그녀는 두서너해 전에 한 지역을 방문해 현지조사를 벌인 적이 있었다. 그녀가 이 마을을 찾은 것은 외딴 마을의 전통놀이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녀가 초대받은 집에서 접할 수 있었던 것은 기대와 전혀 다른, 그러니까 너무나 현대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원주민 집에서 아직 런던의 극장가에는 개봉되지 않았던 <원초적 본능>을 비디오로 봤던 것이다.

### 세계화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기든스는 첫장 ‘세계화’에서 특유의 제3의 시각으로 회의론자와 급진론자를 모두 비판한다. 회의론자에게 세계화는 “복지제도를 해체시키고 국가지출의 삭감을 원하는 자유시장론자들이 널리 퍼뜨린 하나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급진론자들은 당연히 회의론자들의 대척점에서 있다. 그들은 “국민국가의 시대는 지났다”고 공언하고 있다. 기든스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두 견해가 “세계화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

미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두 집단이 세계화 현상을 전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는 경제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기술·문화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기든스는 주장한다.

전방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해 기든스는 상당히 우호적이다. 그같은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리스크>와 <전통> 장이다. 기든스는 리스크를 “미래의 가능성과 관련지어 능동적으로 평가되는 위험을 가리킨다”고 정의하면서, 리스크의 적극적인 수용은 역동적인 경제와 혁신적 사회의 핵심요소라고 역설한다. 기든스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급격한 변화를 경계하기보다는 기회로 활용하는 과감성이 요구된다.

기든스는 이 책에서 전통은 ‘발명’된 것이라는, 가히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는다. 그 근거로 기든스가 든 예는 스코틀랜드의 민속의상인 킬터스커트다. 이 스커트가 등장한 것은 놀랍게도 18세기초로, 노동자들을 위해 한 잉글랜드 사업가가 기존의상을 개량한 것이 그 연원이 됐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든스가 전통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기든스는 우리에게 전통과피나 변화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조언한다. 어차피 만들어진 전통이라면,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며, 세계화가 새로운 전통을 낳을 수도 있다는 낙관적 사고가 바탕에 깔려 있다.

사회학자로서 기든스의 명성을 확인할 수 있

는 것은 <가족> 장이다. 이 부분에서 기든스는 세계화가 인류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다. 기든스에 따르면, 세계화는 전통적인 가족을 해체하며, 양성평등과 생식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성행위(동성애는 그 논리적 연장선에서 있을 뿐이다)를 확산

시키고 있다. 기든스는 세계화의 물결이 가져온 가족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가난한 국가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과 균등한 교육을 이뤄야 하는데, 이를 촉진하는 것이 바로 전통적 가족의 해체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장에서 기든스는 동구권의 몰락과 아시아의 민주화가 보여주듯, 세계화가 민주주의를 확산시켰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기든스는 선진 민주국가는 민주주의 그 자체의 심화(이를 가리켜 기든스는 ‘민주주의의 민주화’라 명했다)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초국가적 대처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유럽연합을 그 적절한 예로 들었다.

### 세계화의 부작용 막을 대안 없어

지금까지 논의된 세계화는 경제적 현상에 제한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 면에서 세계화를 폭넓은 시야에서 조망한 기든스의 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특히 전통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리스크를 각오하고 과감하게 도전하라는 메시지는 인상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세계화가 이제 명실상부한 ‘지구촌’ (global village) 시대를 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화는 ‘전지구적 약탈’ (global pillage) 체제 또한 낳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든스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적절한 대안이 이 책에 제시되지 않은 점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마도 그것은 IMF라는 ‘세계화의 덫’에 걸려 큰 고통을 겪었던 우리가 해내야 할 몫인 듯싶다. — 이권우 기자